

춘천예술마당 봄내극장

박정환, 송상헌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71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3,242m ²
건축면적	306.38m ²
연면적	748.82m ²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높이	21.7m
건폐율	25.55%
용적률	63.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구조설계	(주)라인
설계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박정환, 송상헌)
설계담당	프로젝트 매니저: 정은선 프로젝트 팀: 이현우, 정성욱 공연장 컨설팅: 고스트엘엑스(류정식)
시공	(주)삼산건설
기계·전기설계	(주)하나기연
설계기간	2019.9.~2020.6.
시공기간	2020.11.~2021.10.
건축주	춘천시청



도시 속 봄내극장

기억을 품은 극장, 미래를 여는 무대

춘천예술마당이 위치한 곳은 춘천 원도심 중심부로,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사이이다. 그 주변에는 춘천미술관,
창작관, 명동거리 등 문화 및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봄내극장은 단독 시설로 존재하기보다
주변 시설들과 연계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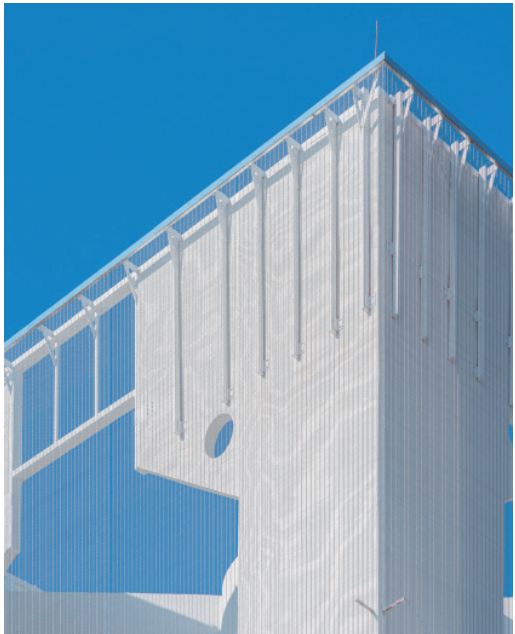


봄내극장과 춘천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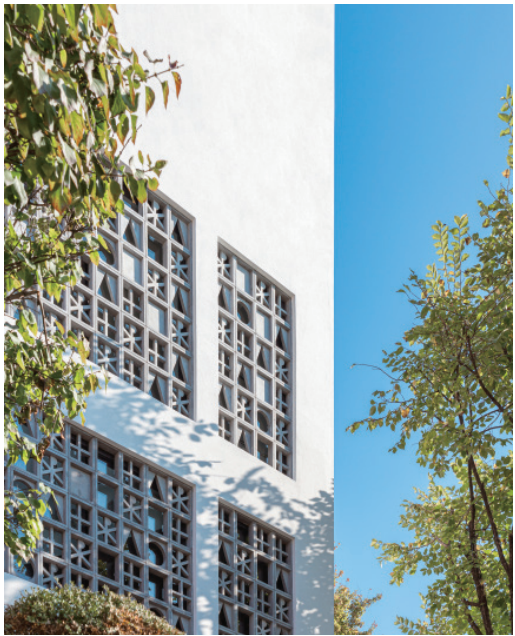


© 상이전

평지붕으로 층고를 확보한 모습



© 상이전



© 상이전

상 옥탑 장식물과 메탈 패브릭
하 그대로 유지한 창문 장식



© 송유진



© 송유진

상 1층 라운지
하 내부 계단실



© 송유진

객석 공간

외부 마감은 흰색 스티코를 사용해 간결한 이미지를 구현하였고, 건물 전면의 상징적 장식은 형태는 유지하되 색상을 변경해 전체와의 조화를 꾀하였다. 아울러 봄내극장의 상징과도 같은 옥탑 장식물 역시 그대로 유지하되 파사드를 메탈 패브릭으로 감싸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다.



© 아야미

밤에 바라본 봄내극장

기존 건물의 역사와 리모델링 배경

춘천예술마당 봄내극장은 춘천 시민들에게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원래는 1970년에 춘천중앙감리교회로 지어진 건물로, 2000년 춘천시가 매입해 공연장으로 전환하면서 ‘춘천예술마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후 오랜 기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2017년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건물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설계의 목표는 기존 건물의 주요 요소를 존중하면서,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현대적으로 보완하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도시 맥락과 외부 공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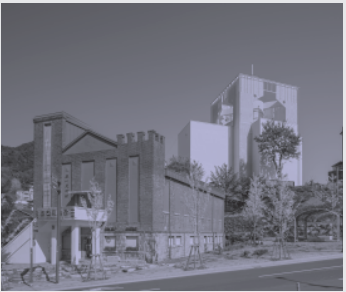
춘천예술마당이 위치한 곳은 춘천 원도심 중심부로,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사이이다. 그 주변에는 춘천미술관, 창작관, 명동거리 등 문화 및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봄내극장은 단독 시설로 존재하기보다 주변 시설들과 연계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하였다.

이에 설계 과정에서는 외부 공간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건물 간 관계성을 개선하였다. 마당의 구성과 동선을 조정해 공연장으로서의 진입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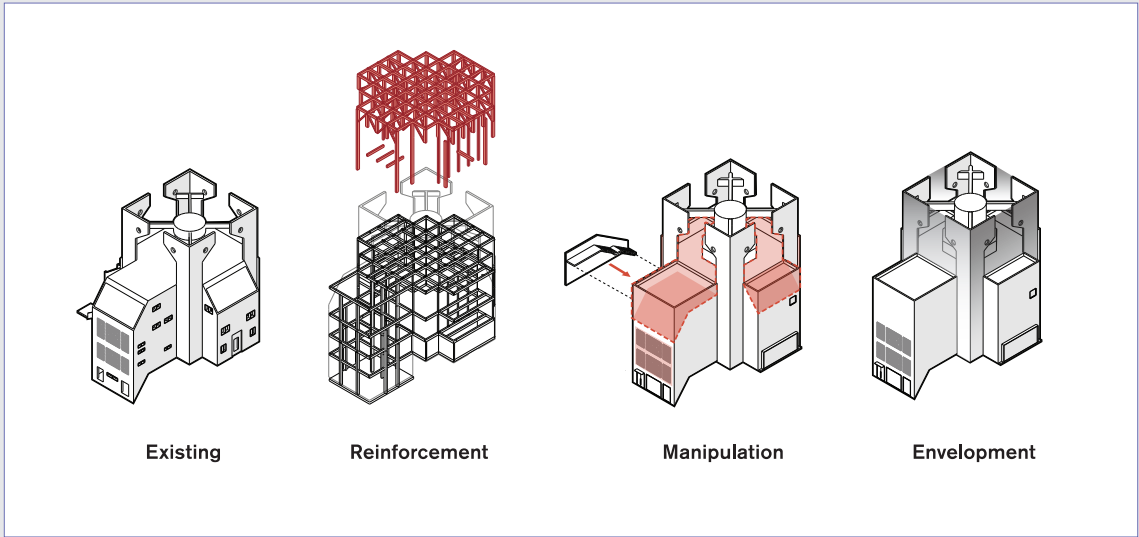
구조 보강과 외관 개선

기존 건물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건물에 슬래브 보강, 보 첩판 보강, 철골 보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까지 높였다. 특히 무대 위 리깅빔과 캐워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지붕 구조를 새롭게 보강하였고, 공연 제작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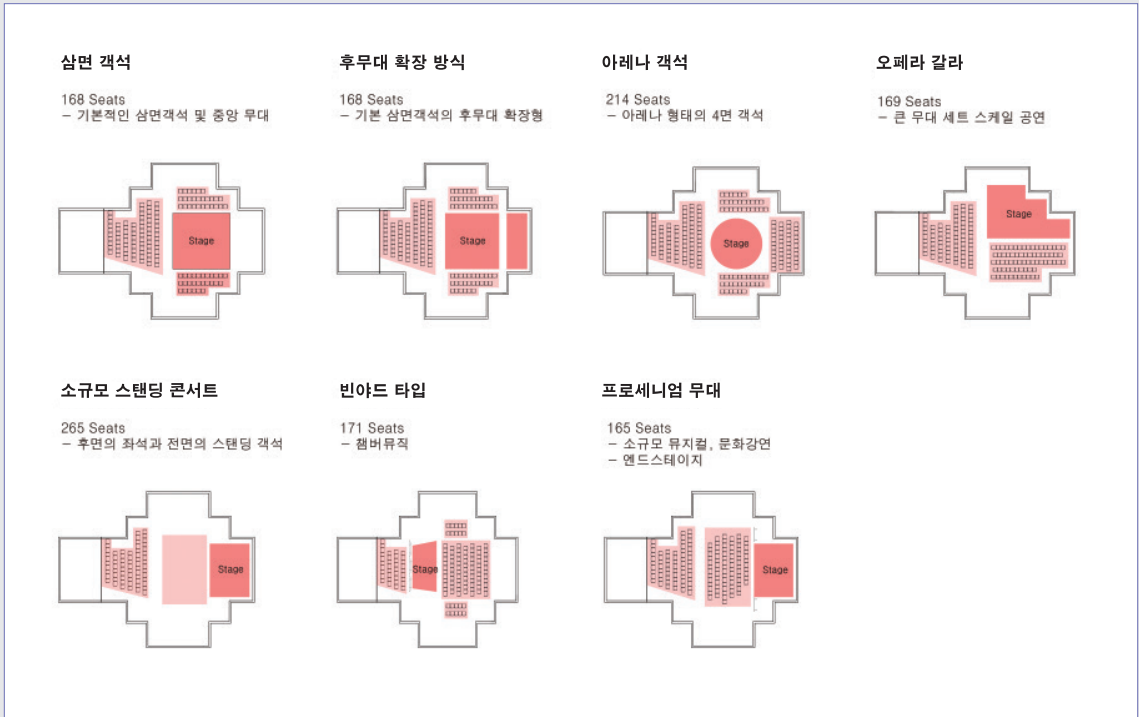
© 아야미



상 도시 속 봄내극장
하 봄내극장과 춘천미술관



봄내극장 리모델링 콘셉트 다이어그램



무대 활용 방안 다이어그램

외관은 전체적인 형태와 비례를 조정하였다. 기존 경사지붕은 철거하고 평지붕으로 변경해 층고를 확보하였으며, 하부 매스의 크기를 조정하여 비례상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는 옥탑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감을 높였다. 외부 마감은 흰색 스테코를 사용해 간결한 이미지를 구현하였고, 건물 전면의 상징적 장식은 형태는 유지하되 색상을 변경해 전체와의 조화를 꾀하였다. 아울러 봄내극장의 상징과도 같은 옥탑 장식물 역시 그대로 유지하되 파사드를 메탈 패브릭으로 감싸 현대적인 느낌을 더했다.

관람 환경 개선과 유연한 무대 구성

내부 공간에서는 공연자와 관객 모두의 경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봄내극장은 ‘Found Space’라는 개념을 통해 비공연장의 공간을 공연장으로 변형한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단순한 노후 공연장 개선을 넘어 생동감 있는 새로운 공연 공간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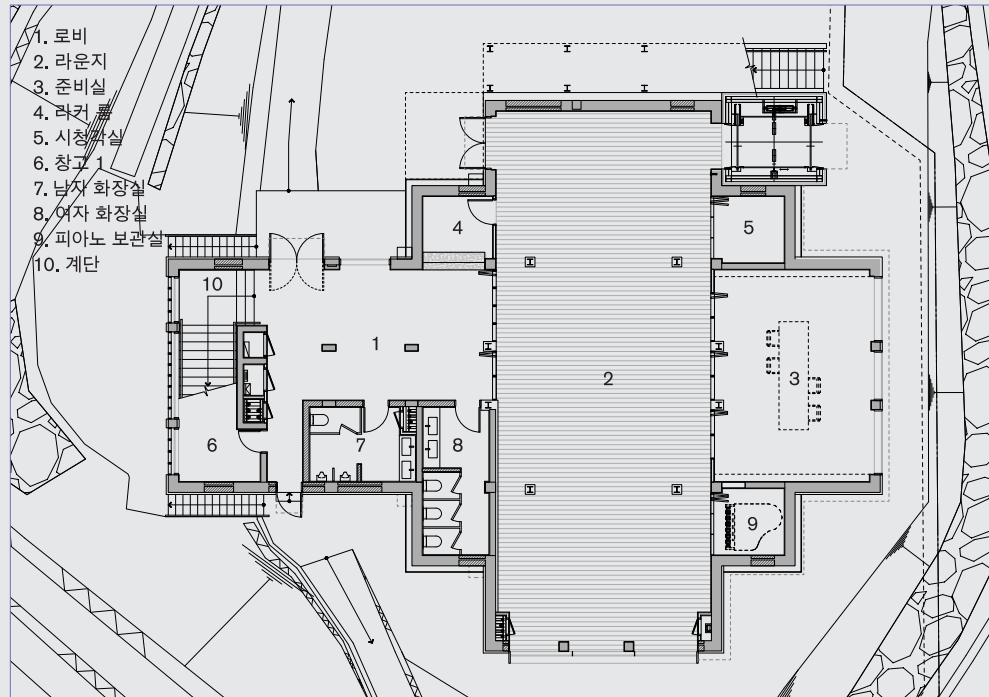
이에 기존 3층 객석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이를 2층으로 재배치해 전체 좌석의 시야각(C-Value 90등급)을 확보하였으며, 관객과 배우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 친밀감을 높였다. 또한 고정 좌석과 이동형 좌석을 혼합해 공연 형식에 따라 무대와 관객석 구성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공연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비와 조명·음향 환경도 개선하였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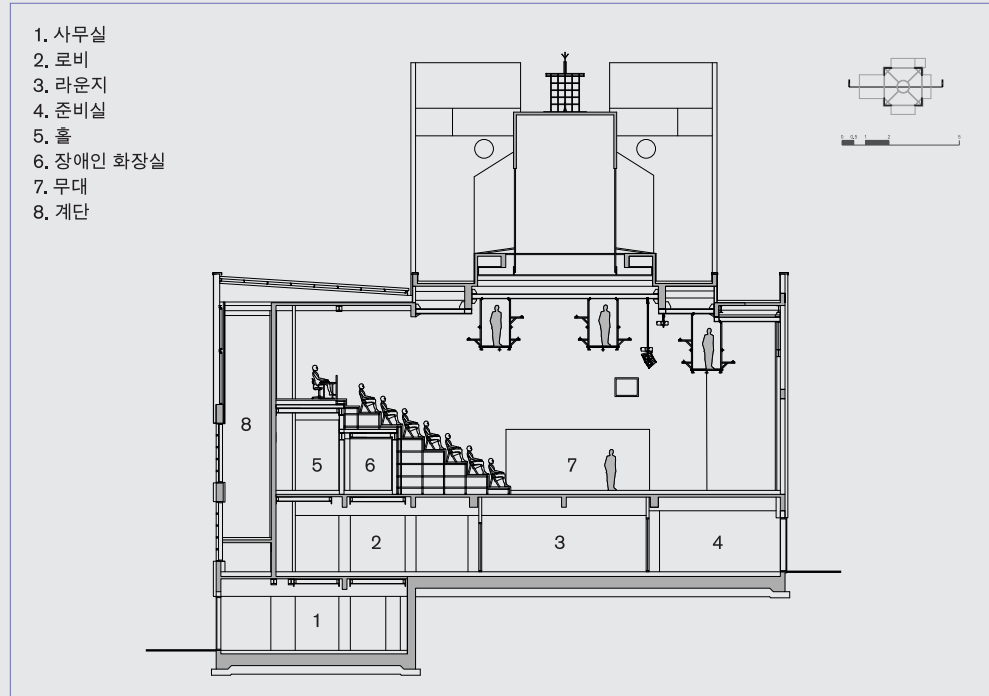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리노베이션을 넘어서 기존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였다. 이에 관객 로비가 없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해 1층과 2층의 사용되지 않던 홀 공간을 로비로 구성하고, 관객의 진입 흐름을 명확히 하였다. 이 로비 공간은 관객들이 공연 전후에 머무르거나 방문자 간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상 객석 공간
하 1층 라운지



1층 평면도



단면도

1층에 마련한 라운지는 공연자들의 위밍업이나 워크숍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무대와 직접 연결되는 외부 계단을 복측에 신설해 야외 공간을 활용한 공연도 가능하게 하였다.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장애인 동선을 개선하고, 장애인 접근성도 확보하였다.

작은 프로젝트가 만든 큰 가능성

춘천예술마당 봄내극장 리모델링은 예산과 면적의 제약 속에서 진행된 소극장 개선 프로젝트였지만, 단순히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간의 쓰임을 재구성하고 지역 문화공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기존 건물이 가진 기억과 장소성 위에 공연, 시민, 도시가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공공건축의 설계에서 남기는 물리적 결과물뿐 아니라, 공간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였고, 봄내극장이 그 가능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상 평지붕으로 층고를 확보한 모습
하 그대로 유지한 창문 장식



단면 다이어그램